

새로운 공동체 질서형성과 농촌지역개발



최 수 명

전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

1. 머리말 : 농촌의 의미·시각·비전의 다양화

세계화의 문명사적 흐름이 싹트기 시작한 지난 80년대 이전까지 우리는 우리농촌에 대해 매우 단순하면서 명쾌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단군 이래 한번도 성취하지 못했던 주곡의 자급달성이라는 민족적 염원이 그것이다. 국민이 필요로 하는 충분한 양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농업인과 농업인, 농업인과 정부, 농정당국과 다른 정부부서가 운명적으로 결합된 공동체적 질서를 구축하여 왔다고 표현할 수도 있다.

아직도 농촌에 기대하는 국민적 소망에 식품생산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4P(Production, Place, Play, Protection)로 대변되는 기능·역할의 다양화에 의해 농촌에 부여하는 의미 역시 다양화하고 있다. 농촌의 의미는 농촌지역에서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중첩되기도 하지만 농촌에서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부류들을 개략적으로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Moynagh, M. et al.)

① 전통주의자(Traditionalists)

- 농촌(또는 전원지역)과 오랫동안 관계를 맺어 오면서 전통적인 농촌생활을 동경
- 농촌경제의 재구조화에 의한 이농·영농다각화·신규기업창업 등에 의해 전통주의자들은 소수집단화

- 신규기업 도입확대에 의해 가치관이 다른 도시민이 다수 입주하게 되면 그중 일부는 지역의 전통적 방식에 반하는 태도를 보일 수도 있음
- 이에 따라 농촌지역은 도시의 놀이터(Urban Playground)가 되며 농촌이 전통적으로 고수하였던 가치가 도시적 가치(City Values)에 의해 대체

② 이상주의자(Idealists)

- 목가적 동경에 의해 은퇴자, 도시통근자, 주말거주자 또는 농촌에서의 일자리를 찾아 유입한 근로자
- 환경적(Environmental) 이상주의자와 낭만적(Romantic) 이상주의자 등 2부류로 구분가능
- 환경적 이상주의자들은 '농촌의 이상향은 녹(the rural idyll is green)' 이라는 믿음을 갖는데 환경적 가치가 확산됨에 따라 그 수가 증가
 - 일부는 은퇴 또는 폐농 농장을 인수하여 보다 지속 가능한 영농방법을 적용
 - 또 다른 일부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집약적 농업형태, 교통혼잡, 조잡하게 지어진 신규주택 등에 염증을 느껴 환경압력단체를 지원: 녹색의 수제(Hand-Knitted) 농촌 창출이 의미있음
- 낭만적 이상주의자들은 보통 전통주의자들과 연대하여 전통농촌 보존을 추구
 - 주택개발이 중심도움에 집중되는 경우 상당수의 훼손되지 않는 마을이 잔존가능하며 이들은 신규 이

주민이 홍수유입되는 것을 막아 자신들이 꿈꾸는 마을을 보존

- 그러나 분산되는 경우 마을주변에 우후죽순처럼 주택이 들어서게 되어 마을모습에 지방적 전통이 소실
- 또한 전통이 잘 보존된 마을이라 할지라도 낭만적 이상주의자들 일부는 농촌관광에 종사하게 되어 관광객이 선호하는 모습으로 변모

○낭만적 이상주의자들이 자신들의 꿈이 이루어질 수 없거나 바꿀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실용주의자로 변모가능

③ 실용주의자(Pragmatists)

- 삶의 질을 고양하는데 농촌지역을 최적지로 간주: 건강한 환경, 보다 여유로운 생활방식, 미적 경관에 대한 접근용이 등
- 도시 및 교외지역으로부터의 인구유입에 의해 가장 급증하고 있는 농촌주민집단
-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다 보면 일부는 실망: 교통혼잡과 파편화된 풍경의 반복에 의해 혼잡이 느껴지면 일부는 보다 원격지역에 위치한 농촌지역으로 재차 이주도 시도
- 농촌에서 성장하였거나 직업 및 기타 이유로 이주할 수 밖에 없었던 또 다른 부류는 도시적 생활스타일을 동경하여 농촌지역에서 보다 규모가 크고 변화한 시장도움을 선호

④ 방문자(Visitors)

- 농촌을 즐기기 위해 찾아오는 부류로서 경제적으로 풍요해짐에 따라 그 수는 증가하지만 다른 레저관광 부문과의 경쟁이 격화
- 보다 세련된 방식으로 매력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지식 집약적 농촌수요도 증가하고 스포츠 및 새로운 유형의 야외위락과 같은 활동추구형 농촌(Activity Countryside) 수요도 증가
- 환경친화형 영농방식의 도입으로 일부 농촌지역은 경관과 생물다양성이 증가하여 매력성이 강화되는 반면 부실한 주택경관, 유명지역의 과밀, 방치된 폐휴경지 등에 의해 매력도 상실
- 주변 국가들과의 국제교통망이 확충됨에 따라 비용·절면에서 우수한 해외의 주말단기여행을 지향하는 실

용적 선택도 성행 가능

이상과 같이 농촌에 대한 의미부여가 다른 부류들이 서로 겨루게 되면서 '식량공급기지'로서의 전통적인 비전은 새롭게 형성되는 다음과 같은 비전에 의해 대체된다

① 녹색농촌(Green Countryside)

- 지속가능성에 기반하며 '환경적 이상주의자들'로부터 지지
- 기업농, 주택건설업자 및 구입자, 기업, 레저추구 방문자들로부터 반발가능

② 소비농촌(Consumer Countryside)

- 농업생산 및 환경보다 소비가치가 지배적인 비전으로 농촌지역을 하나의 시장으로 간주: 식품·관광·거주 목적
- 단지 농촌을 또 하나의 시장으로 폄하하는 것에 대해 분개하는 '환경적 이상주의자들'로부터의 격렬한 반대에 직면할 가능성

③ 포괄형 농촌 (Inclusive Countryside)

- 정책결정자들에게 매력적인 비전으로 중산층 및 원주민은 물론이고 빈곤층과 소수계층에게 개방되어 있는 농촌
- 균형이 이루어진 공동체를 이상향으로 여기는 사람들로 부터 지지
- 그러나 앞에서 설명한 네가지 유형의 부류집단 어디에도 단지 부분적으로만 관련되는 비전이어서 광범위한 지지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

④ 실용적 농촌(Pragmatic Countryside)

- '작용하는 것이 중요(What counts is what works)'라는 개념에 기반한 포스트 모던한 접근
- 전통주의자들이 거의 사라지고 낭만적 이상주의들과 방관자들 다수는 실용적 성향을 보이고 있으며 녹색·소비·포괄적 가치는 농촌에 적용이 곤란
- 의미·비전들이 제각각 경쟁을 벌이다가 휴전이 이루어 농촌은 실용적 성향이 타협영역

이렇게 농촌을 보는 당사자들의 의미·시각·비전들이 매우 다양하여 나름대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실용적 농촌'을 지향하게 될 수 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집약농업과 유기농업, 개발과 보전, 관광업자의 지역주민, 신규 레저단지조성 찬반여론 사이 등 갈등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주민들은 공유이념보다는 최대공약수라는 관점에 기반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할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따라서 이렇게 다양화·다원화·복잡화하고 있는 농촌 지역상황을 통합적으로 엮어 농촌지역개발이 강력하게 추동되기 위해서는 현대적 시각에서 농촌지역사회의 공동체적 신질서를 형성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특정개인과 부분을 살릴 수 있어서 다른 개인과 부분은 오히려 피해를 보는, 그래서 “우리”와 집단은 살릴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2. 전통적 농촌공동체의 형성과 붕괴

전통적인 농촌마을은 주변토지를 개척하기 위한 개인의 집합에 기원하고 있으며 취락과 주변토지가 통합된 결절점으로 마을이 자리하게 됨에 따라 마을의 골격은 주변토지와 친밀한 관계를 표현하고 있다. 또한 포장(농경지), 우물, 관개수로, 통행로 및 가옥을 구성요소로 하여 공간영역적으로의 통합이 조직화된 사회를 이루고 있어 공동체 형성을 위한 물리적 기반이 충실히 갖추어져 있다.

지역사회의 조직화는 농업활동에서의 공유와 협동, 토지보유의 지속성 유지, 통제력과 권위확보 등 3가지 수준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개략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① 공유와 협동: 소농지배적인 마을의 조직화 기제로서 노동력, 영농장비·토지·시설 이용면에서 전가
- ② 토지보유의 지속성: 부족 및 씨족적 관습에서 발전된 것으로 주변토지를 지역사회가 관할하기 위해 토지의 소유·배당·이용에 대한 제도적 통제력을 확보
- ③ 통제와 권위: 토지이용권은 상위적·외적권위에 종속되고 지주에 대한 종속적 관계에 의해 소농들의 활동폭은 마을영역내로 제한

이러한 기제에 의해 조직화된 마을공동체는 독립성이 강한 작은 공화국으로 제반서비스의 교환을 통해 공동체적 단결을 강화하였다. 주민사이의 내적 접촉빈도가 외적인 접촉의 경우보다 높고 개인은 마을과 정신적·상징적 측면에서 동일시하면서 지역사회와 장소의 정체성을 서로 강화시켰다. 또한 마을자체의 공식적 사회조직에 의해 공동체적 단결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반복적이고 의식적인 충성의 표현에 의해 마을에 대한 애착을 강화하여 왔다.

전통농촌은 이렇게 “農”의 정신을 중심으로 풍요로운 유

일생산의 이념하에 폐쇄적·유기적인 공동체를 형성하여 왔다. 그러나 도시산업사회화가 문명사적인 큰 흐름으로 자리하면서 농업의 산업화가 추진되고 이에 따라 농촌은 다원화된 생산이념하에 개방적 독립체제로 변모하여 왔다. 과거의 농촌지역사회는 강한 소속감에서 유래된 정체성과 이동능의 제한을 특징으로 하는 지방성(Localism)에 바탕을 두고 공동체 정신을 배양하여 왔으나 정체성의 급격한 소멸과 이동능의 획기적 증대에 의해 현대농촌지역사회는 공동체적 질서가 거의 대부분 와해되고 있다. 농촌지역 내부의 경제사회적 분화와 외부의 이질적 요소투입에 의해 새로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으나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구조를 새롭게 엮어갈 공동체적 신질서가 구축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3. 새로운 농촌공동체 질서형성을 위한 기반개념

가.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새로운 개념

인류는 긴 역사를 통해 집합적 형태로 자연자원을 관리하여 왔고 다양한 유형의 지역조직에 의해 협력을 제도화하였다.

그러나 최근 관련정책·시책 대상의 개인화, 무임승차자(Free Rider) 문제, 국지적 관리체계 붕괴 등으로 자연자원이 질적으로 훼손되자 국가가 관리책임을 지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인간은 그룹으로 잘 조직될 때, 계획 및 실행과정에서 자신의 지식이 요구·수용될 때 사업이 끝난 후에도 활동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지역수준에서 자연관리에 적합한 사회조직형태를 개발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보고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적 연관성(Social Connectedness)을 하나의 자본재로 보는, 즉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고 있다.

사회적 자본은 지속가능한 삶에서 사회적 유대와 규범이 중요하다는 이념에 기반한 것으로 사회적 구조와 조직을 개인이 자신의 편익을 실현시키는데 활용하는 자원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관점에 유의하고 있다. 특히 지역의 제도 또는 조직은 그 구성원들이 반복적이고 값비싼 협상을 최소화 하는 가운데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효과적이다.

사회적 자본의 기능은 첫째 함께 일하는데 소요되는 비

용을 절감하여 협동 용이, 둘째 다른 사람도 같은 행동을 할 것으로 알고 집단행동에 대한 투자 신뢰, 셋째 자연훼손과 같은 부정적 영향이 결과되는 무절제한 개별 행동의 자제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서 사회적 자본이 구비해야할 핵심측면은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 ① 신뢰관계(Relations of Trust): 신뢰는 협동을 원활하게 하고 신뢰형성에 많은 시간이 걸리며 쉽게 깨질 수 있음
- ② 상호의존 및 교환(Reciprocity and Exchanges): 사람사이의 장기적 책임감 발현에 기여하여 신뢰를 진작시키고 친환경적인 결과 달성에 기여
- ③ 공동규칙·규범·제재(Common Rules, Norms and Sanctions): 집단의 이해를 개인의 경우보다 우위에 놓고 상호합의 또는 전수된 행위규범으로 게임의 규칙, 사회내부 도덕률, 사회결합재(Cement of Society)로도 호칭하며 고도의 사회적 자본은 개인이 개인적 권리와 집단적 책임의 균형을 유지하는 높은 수준의 내부 도덕률을 함의
- ④ 관련성, 그물망 및 그룹(Connectedness, Networks and Groups): 같은 견해·목적 가진 사람들 사이의 연결(유대, Bonding),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는 외부그룹과의 연결(가교, Bridging), 집단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외부기관을 수직적으로 끌어들이(연계, Linking) 등이 중요한 유형

나. 지속가능성

성공적인 인간의 삶은 자연·사회·인적·물리적·재정적 자본의 전체 축적분에서 유래되는 서비스 가치에 의존한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삶이란 자연자원 기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스트레스 및 충격에 대처하고 이로부터 회복할 수 있으며 현재 및 미래에 능력과 재산을 유지 또는 고양할 수 있는 삶을 말한다.

지속가능성은 자원이용잠재력의 배분과 관련하여 현재 대 내에서의 평등(Intra-generational Equity)과 세대 간 평등(Inter-generational Equity)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또는 지속적인 삶의 추구는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지속가능성(Economic, Social, Environmental

Sustainabilities)이 동시에 균형있게 취해져야 가능하다는 확대된 개념의 지속가능성에 기반하고 있다.

다. 네트워크 사회

네트워크의 과학적 근거는 “모든 것은 모든 것에 잇닿아 있다.”라는 고찰에 기반하고 있다. 자연은 자기조직화(Self Organization)를 통해 구성요소들을 우아하고 정교하게 네트워크로 결합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환원주의(Reductionism)의 환상에 빠져 세계를 분해해 놓고 복잡성이라는 견고한 벽에 직면하여 부분을 어떻게 결합하여야 할지 당혹해 하고 있다.

최근 모든 복잡성은 엄격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 많은 과학분야에서 발견되고 우리의 세계 어디에나 흔히 네트워크가 존재함을 인식하면서부터 훨씬 강력하게 네트워크가 새로운 세기를 지배할 것이 예측되고 있다.

네트워크는 세계를 노드(Node)와 결절점 사이를 연계하는 연결선(Link)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는 개념으로부터 출발한다. 네트워크 공간에서는 노드들이 많아도 결절점 사이의 거리는 매우 짧아 이러한 현상을 “여섯단계의 분리”라 칭한다. 네트워크의 물리적 규모는 매우 크더라도 노드 간 연계의 단계는 매우 작은, 다시 말하면 좁은 세상인 것이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라는 이야기이다.

네트워크는 “무작위 네트워크”와 “척도없는 네트워크”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각각을 개략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① 무작위 네트워크: 연결이 완전히 무작위적으로 부여되며 네트워크가 커지면 거의 모든 노드들은 같은 수의 링크를 보유하는 평균이 지배하는 세계로서 빈도는 푸아송 분포
- ② 척도없는 네트워크: 희소한 허브(Hub)에서 다수의 작은 노드들에 이르기 까지 연속적인 위계만 있을 뿐 내재적인 척도(Intrinsic Scale)가 없는 세계로서 빈도는 멱함수 분포를 하며 자기조직화 원리가 지배(구조적 안정성, 동적작동, 견고성, 오류나 공격에 대한 저항력 등)

경쟁적 환경에서 허브의 성쇠는 적합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적합성의 분포차이에 의해 네트워크의 범주를 양대별해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적익부(適益富 fit-get-rich): 대부분의 노드들이 비

슷한 적합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적합성이 강한 노드는 허브로 성장하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노드는 평화적으로 공존

- ② 승자독식: 적합성이 가장 큰 노드가 모든 링크를 독점하여 단 하나의 허브와 나머지 작은 노드들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괴리가 존재

라. 생명의 그물(The Web of Life)

우리시대의 중요한 문제들은 시스템적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해결이 가능하고 이는 지속가능한 공동체의 사회문화적 환경의 창출에 기반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사고와 가치들이 자기주장적 시각에서 통합적 시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 고		가 치	
자기주장적	통합적	자기주장적	통합적
합리적	직관적	확장	보존
분석	종합	경쟁	협동
환원주의	전일주의	양	질
선형	비선형	지배	협력

여기서 시스템적 사고는 부분에서 전체, 대상에서 관계로의 전환, 특정 시스템수준에서의 특성창발, 다양한 시스템수준으로의 주의전환 등이 핵심적인 특성으로 데카르트적인 기계론(분석론)으로 부터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생태학적인 재생과정의 출발인 광합성은 광물질(땅), 햇빛(하늘), 탄산가스(대기)의 결합과정으로 하늘과 땅이 협력하여 생명공동체를 탄생시키는 과정이다. 따라서 생명의 근본은 협동, 협력에 근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자연에 대한 접근은 지배와 제어가 아니라 존중과 협동, 대화방식이 적절하며 이는 인간의 본성에 훨씬 가까운 성향이다. 이는 생명시스템으로서 농촌이 지향하여야 조직원리를 은유하고 있다.

살아있는 시스템의 특성은 진화에 의한 창조성인데 진화를 구동하는 경로는 돌연변이, 유전자 교환과 함께 공생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고등생물의 가장 주된 진화 경로로 공생을 들고 세포속에서 박테리아 등 미생물과의 장기적 공생이 새로운 형태의 생물형태를 창조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다시 말하면 신다윈주의는 “생존을 위한 필사적인 경쟁과 투쟁의 장”으로서의 자연을 인식하고 있는데 비하여 공생기원설은 “지속적인 협동과 상호의존 관계로서의 자연”을 중심적인 개념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살아있는 시스템은 자기제작적인데 자기갱신(Self Renewal)과 구조적 연결(Structural Coupling)이 중심적인 특성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 ① 자기갱신: 주기적 변화: 조직과 기관들은 주기적으로 세포들을 교환하지만 주기성에 의해 전체적인 자기동일성(조직의 패턴)을 유지
- ② 구조적 연결: 발생적인 변화: 환경과의 순환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지속적으로 구조적인 변화를 촉발하는데 이 때 일어나는 변화는 지속적인 적응, 학습, 발생을 결과

이에 따라 살아있는 시스템은 조직과 패턴에 의해 시스템의 정체성이 결정되고 구조에 의해 시스템의 행동이 결정된다.

마. 농촌활동의 다면성 분석(Multifunctionality Schemes)

최근 농촌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활동들은 개별 기능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상호연관되어 제공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고 다기능성의 통합은 지역수준에서 새로운 자원기반을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와 함께 개별 농촌활동들은 엄격히 구분하기 어려워 다차원성과 집합적인 지역수준에서 이루어지는 높은 통합도도 보여지고 있다.

이에 따라 농촌개발과정에 내재되어 있는 기능적 관계를 분석하여 토지·노동력·지식·자연 등 자원이용구조의 재조합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므로써 농촌개발과정의 논리·기제·영향을 규명하고 효과를 적시하기 위해 다면성 분석이 시도되고 있다.

구성부분을 집합시키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추가적인 상위 수준의 상호관계 및 영향이 존재하므로 분석수준을 확대하면 단순 통합이상의 효과가 복수의 활동 또는 실제의 연계에 의해 다음과 같은 효과가 발현가능하다.

- ① 간접 승수효과: 분석대상 사업이외의 다른 농촌 경제 부문에서 발생하는 긍정적 간접효과
- ② 대체효과: 새로운 농촌활동에 의해 주체들 사이의 경쟁을 유발하여 다른 활동주체에게 추가적 비용을 받

생시키거나 매출·수입 감소를 결과

- ③ 시너지 효과: 공생적이고 상호 강화적인 활동사이의 관계에 의해 활동영역·상이한 수준·주체 등의 사이에서 발현

4. 새로운 농촌공동체 질서형성 패턴: 가설적 접근

다양한 농촌공동체 조직에 의해서만 발현이 가능한 사회적 자본에 대한 중요성이 농촌개발에서 크게 인식되고, 부문별 지속가능성의 통합이 공동체적 질서에 기반한 다협과 협력에 의해 가능하며 내생적 농촌발전의 중요한 축인 다면성 극대화, 즉 시너지 효과 발현을 위해서도 공동체 형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새로운 농촌공동체 질서형성은 농촌지역개발의 선결적 과제가 되고 있다. 또한 수직적 연계는 물론이고 수평적 연계가 더 강조되는 네트워크 사회에서 생명의 그물망속의 살아있는 시스템으로서의 농촌은 그 근본이 하늘-사람-땅이 결합되는 생명공동체이고 자연 친화성에 의해 지배와 제어보다는 존중과 협동이 강조되는 사회공동체이다.

새로운 농촌공동체는 풍요를 상징하는 “農”의 단일 이념하에 구성원(노드)의 동질성과 관계(링크)의 단순성, 사회적 지평과 이동영역의 지방성(영역)에 기반하였던 전통농촌의 공동체와는 질서구조 또는 패턴이 달라질 수 밖에 없다는 인식으로부터 출발한다. 농촌의 위상이 시공간적으로 확대되는 관점을 고려한다면 영역적으로는 자기제작이 이루어지는 패쇄적 공간이지만 교류측면에서는 물질과 정보가 환경과 교환되는 개방적 공간인 생명의 양면적 속성에 유의하여야 한다. 농촌지역개발 노력도 이에 따라 내생적 접근과 외생적 접근이 조화롭게 병행되어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새로운 농촌공동체는 우선 협력의 영역적 계층수준에 의해 주민집단 → 마을 → 지역 공동체의 계층 수준을 가진 형성패턴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재화 및 서비스의 상보적 수급관계 형성, 동질적 가치의 공유 등에 의해 유대·가교·연계 등의 방식으로 마을과 마을, 또는 농촌과 도시가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다. 예로서 농촌 마을과 특정한 도시지역이 마을의 역사·문화를 공동으로 계승·발전시킨다면 이는 역사·문화 공동체가 된다.

기능별·역할별 공동체형성도 가능하다. 생산자 조직인

작목반·연구회·영농조합법인 등은 물론이고 자연환경보전·역사문화가꾸기·취미 및 레저활동 등을 위한 동호인 조직도 공동체형성 사례인데 기능적 특성 때문에 영역으로부터 개방적인 속성을 갖는다.

시너지 효과 발현에 기반한 광역적 클러스터링의 관점에서 수직적 또는 수평적 연계가 이루어지는 공동체형성 질서 패턴도 예상 가능하다. 생산에서 가공·유통에 이르는 수직적 연계는 물론이고 다품목 패키지 생산·유통체제 형성을 통한 수평적 연계에 의해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공동체 형성이 이루어질 수 있다.

지속가능성의 핵심개념 중 하나인 세대간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과거세대와 현재세대, 또는 현재세대와 미래세대 사이에 전혀 새로운 개념의 공동체적 질서형성도 가능하다. 과거·현재·미래세대의 개발과 보전 수요를 지속가능성의 개념하에 통합시켜서 세대간에 가치를 공유하는 공동체적 질서를 정립하고 현재세대가 그 질서에 따라 행동하는 방식이다.

이외에도 발상의 전환에 의한 다양한 농촌공동체의 새질서 패턴의 창발이 가능하다. 물론 농촌지역개발을 주도하는 핵심적 공동체는 지역사회를 영역으로 하는 공동체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앞에서 언급하였지만 이러한 지역공동체 형성의 기본개념은 지속가능성의 추구,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 농촌 활동의 다면적 속성의 통합적 활용, 생명공동체의 존중과 협력정신, 네트워크 사회가 갖는 관계구조의 다양성에 기반하여야 함을 다시 강조하고 싶다.

5. 맺음말

전통적 농촌 공동체가 사실상 소멸된 농촌지역이 자기제작·조직하는 살아있는 시스템으로서 견고하고 안정된 발전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새로운 질서체계를 갖는 공동체형성 원리가 꾸준히 개발되어야 한다. 농촌이 처하고 있는 여건과 모습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 공동체 형성질서 역시 다양하게 접근될 수도 있지만 시스템적 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다양성·복잡성은 의외로 매우 단순하며 공동된 구조원리에 의해 접근될 수도 있다. 이는 농촌이 본질적·근원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가치로부터 시원될 수도 있고 다양한 전개 상황을 연역적으로 압축하여 필터링하는 역순의 과정을 통해서도 시도될 수 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농촌공동체 질서형성의 원리발견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수많은 농촌계획학도들이 세심한 연구를 끊임없이 수행하여도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지난한 과업이다. 이 글은 그런 의미에서 출발선에서 한걸음도 떼지 못하고 다만 외치고 있음이다.

참 고 문 헌

1. 강병남·김기훈(옮김), 2002, 링크, 동아시아 (LINKED: The New Science of Networks by A.L. Barabási)
2. 김용경·김동광(옮김), 1998, 생명의 그물, 범양사 출판부 (THE WEB OF LIFE: A New Scientific Understanding of Living Systems by Fritjof Capra)
3. 최수명, 2000, 한국농촌정비사업의 전개방향, 한일 농촌계획 심포지움 '21세기 농촌계획과 농촌생활환경개선의 방향' 보고서, 한국농촌계획학회·농촌생활환경연구소·서울대학교, pp. 41-65
4. 최수명, 2005, 전원지역 인구유입에 따른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방안, 농촌지역개발 전문가 토론회 보고서, 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 pp. 29-56
5. 최수명, 2005, 농촌지역개발사업 공동목표 설정 및 수행, 농촌지역개발 동기화 과정-전남지역 교재자료, pp. 19-42
6. Knickel, Karlheing and Henk Renting, 2000, Methodological and Conceptual Issues in the Study of Multifunctionality and Rural Development, Sociologia Ruralis 40(4), pp. 512-528
7. Moynagh, M. and R. Worsley, 2003, The state of the countryside: Scenarios for the future of rural England, A Report to the Countryside Agency
8. Pretty, J, Social Capital and Connectedness: Issues and Implications for Agriculture, Rural Development and Natural Resource Management in ACP Countries, Centre for Environment and Society at the University of Essex, CTA Working Document No.8032.
9. Rural Development Commission, 1993, Rural Sustainable Development, Rural Information Series